

마 침 기 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인도자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저희 또한 완고한 지체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가 영생의 길을 전하게 해 주세요.

가 족 미 셴

바울 되기 역할극

가족 중 한 명이 바울 역을 맡고 나머지는 인터뷰어가 되어 질문하며 바울의 고백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질문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예시

1. 역할 나누기

바울 역할: 한 명이 사도 바울이 되어, 감정을 담아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대답

인터뷰어 역할: 나머지 가족들이 기자나 방송 진행자처럼 질문자 역할 수행

2. 역할극 진행 순서

① 오프닝 (인터뷰어)

"오늘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겪은 사도 바울을 모셨습니다. 바울님, 안녕하세요?"

② 바울의 자기소개

"저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옳다 했죠..."

③ 질문 - 답변 시간

"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④ 클로징

인터뷰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분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니!"

바울(가족 구성원):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미션을 수행한 사진을 교회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한 가정에게 식사쿠폰을 선물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예수님이 주인되는 시간, 가족이 가족되는 시간

7월 2주차

더빛 가정예배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 음 열 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매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테필린캠프를 앞두고 무엇을 기대해?”

“수양회를 앞두고 무엇을 기대하세요?”

찬 양 하 기

피아노, 기타, 리코더 등 악기와 함께 하면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 289장 | 주 예수님 내 맘에 들어와

경배와 찬양 |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대 표 기 도

대표기도는 매 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대표기도를 적어주세요.

이번 주 대표기도 | _____

다음 주 대표기도 | _____

말 씬 읽 기

소리 내서 3번 읽은 후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 ○ ○

디모데전서 1장 12~16절

¹²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¹³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¹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¹⁵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¹⁶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 씬 이 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왜곡해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흐려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기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장 악한 자)같은 자신을 어느날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그때부터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음을 깨닫고 나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랑을 만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 씬 나 눔

공통질문

Q.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나요?

또 지금 넘치도록 풍성히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13-14절)

Q. 죄인 중의 괴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절)

자녀를 위한 쉬운 질문

Q. 예수님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에 “좋아! 잘했어!”라고 칭찬하실까요?

또 어떤 모습에 “이 모습은 고쳤으면 좋겠구나.”라고 하실지 나눠 보세요.

성인을 위한 질문

Q.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 또는 약함이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Q.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나요?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